



문서번호 : 24-07-아동청소년인권위-0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담당: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010-3125-4439), 미혼모지원네트워크 오영나 (010-8536-2488)

제 목 : [아동위][공동취재요청] 아동유기 합법화하는 보호(익명)출산제 폐지하고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 제정하라! / 2024. 7. 19.(금) 오전 8시, 국회 정문 앞

전송일자 : 2024. 7. 17.(수)

전송매수 : 총 2매

아동유기 합법화하는 보호(익명)출산제 폐지하고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 제정하라!

- ▲ 정부는 막 태어난 국민인 신생아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보호(익명)출산제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는 이 법을 즉각 폐기하라.
- ▲ 정부는 출생 후 한 달 이내 익명출산, 유기가 가능하게 하여 장애아동 유기를 부추기지 말고, 장애아동 양육 인프라를 구축하라.
- ▲ 국회는 위기임산부라는 프레임에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가두지 말고 보편적 임신, 출산, 양육 지원법을 제정하라.

보호(익명)출산제가 시행되는 7월 19일(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 보호(익명)출산제 폐지연대와 고아권익연대는 오전 8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보호(익명)출산제 폐지와 '논의 종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 및 부모를 알 권리에 대해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뿐 아니라 산모도 보호하지 못 하는 보호(익명)출산제의 한계와 문제를 알리고,

아동과 산모에 대한 진정성 있고, 현실성 있는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익명)출산제를 폐지하고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보호(익명)출산제의 폐해에 관한 당사자인 고아권익연대의 조윤환 대표, 국내입양인연대의 민영창 대표,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김민정 대표가 발언자로 참가하여 보호(익명)출산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실질적인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여성과 아동,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보호(익명)출산제’폐지 기자회견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취재 안내

‘보호(익명)출산제’폐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7월 19일\(금\) 오전 8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보호(익명)출산제 폐지연대, 고아권익연대
- 순서
 - 사회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
 - 발언 1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김희진 변호사
 - 발언 2 :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
 - 발언 3 : 국내입양인연대 민영창 대표
 - 발언 4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민정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2024년 7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보호(익명)출산제 폐지연대, 고아권익연대